

메시지 5

그리스도 예수님의 속 부분들 안에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 삶

성경: 엡 1:22-23, 3:16-17상, 19하, 4:16, 빌 1:8

- I.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갖고자 한다면,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— 엡 1:22-23, 3:17상, 4:16.
- A. 그리스도의 몸은 그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시고,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그분 자신을 확산하시어 우리 전 존재를 점유하심으로써 건축된다 — 엡 3:16-17상, 4:16.
 - B.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인 체험이다 — 골 1:27, 2:19, 3:4, 10-11, 15-16, 4:15-16.
 - C. 오직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인 체험에 의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가질 수 있다 — 골 1:27, 3:4, 10-11, 2:19.
 - D.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실 때,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될 것이다. 이 충만이 바로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이다 — 엡 3:17상, 19하.
 - E. 몸의 생활의 실재는 측량할 수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신 결과이다 — 엡 3:17-18, 4:16.
 - F.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내용은 우리의 존재 안으로 일해 넣어지신 그리스도이다 — 갈 1:15-16, 2:20, 4:19, 골 3:4, 10-11.
- II.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 살코자 한다면,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 부분들 안에 살아야 한다 — 빌 1:8, 엡 4:16.
- A.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사람의 속 부분들을 가지셨으며,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속 부분들 안에서 체험하신 것들은 그분의 사랑과 갈망과 느낌과 사상과 결정과 동기와 의도를 포함한, 그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혼과 마음과 영 안에서 체험하신 것들이었다 — 눅 2:49, 요 2:17, 마 26:39, 사 53:12, 42:4, 막 2:8.
 - B. 바울은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체험한 사람이었다 — 빌 2:5, 고전 2:16하, 롬 8:6.
 - 1. 바울은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, 곧 그분의 애정과 부드러운 긍휼과 동정심에 있어서까지 그리스도와 하나였다 — 빌 1:8.
 - 2. 바울은 자신의 속 부분들을 고수하지 않았고,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을 자신의 것으로 취했다.
 - a.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분의 내적 존재 전체를 취했다.
 - b. 바울의 내적 존재는 바뀌고 재조정되고 개조되었다.
 - c. 바울의 내적 존재는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로 재조성되었다.
 - 3. 진실성, 즉 정직함과 신실함과 믿을 만함과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울 안에도 있었다 — 고 후 11:10.
 - 4.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은 그의 타고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, 곧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.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타고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성도들을 사랑했다 — 고전 16:24.

- C.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 부분들 안에 머물러야 한다 — 빌 1:21상, 8.
1. 바울은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을 체험했다. 그는 성도들을 그리워하는 데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과 하나였다 — 빌 1:8.
 2. 바울은 자신의 타고난 내적 존재 안에서 살지 않았고,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 안에서 살았다 — 골 3:12.
 3.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 되고자 한다면, 반드시 그분의 속 부분들, 곧 그분의 부드럽고 섬세한 느낌 안에 있어야 한다 — 요 15:4상.
 4.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그분의 속 부분들 안에 거하면서 거기서 은혜이신 그분을 누리는 것이다 — 빌 1:7, 4:23.
- D. 빌레몬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 부분들 안에서 몸의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그림을 본다 — 문 7, 12, 20.
- E. 바울은 그리스도의 느낌을 자신의 느낌으로 취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 살았다. 몸에 대한 그리스도의 느낌이 몸에 대한 그의 느낌이 되었다 — 빌 1:8.
1.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 부분들을 자신의 속 부분들로 취했다 — 빌 1:8.
 2. 바울처럼 우리도 머리의 느낌을 우리 자신의 느낌으로 취해야 한다.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서 생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다 — 골 3:12.
- F. 우리가 지체들로서 모든 일에서 머리의 느낌을 갖는다면, 우리는 몸을 고려하고 몸을 돌볼 것이다 — 고전 12:12-27.

III.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 부분들 안에 더 많이 살수록,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우리의 의식은 더 많아지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우리의 느낌은 더 강해질 것이다 — 고전 12:26-27, 롬 12:15.

- A.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몸에 대한 의식과 몸을 위한 느낌을 가져야 한다. 몸은 우주적이며, 몸에 대한 의식과 몸을 위한 느낌 또한 우주적이다 — 고전 12:26-27, 빌 1:8.
- B.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 살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의식해야 한다 — 롬 12:4-5, 15.
- C.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의식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감각이다 — 골 3:4, 15, 롬 8:2, 6, 10-11, 12:4-5.
1. 우리가 이러한 감각을 훈련한다면,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몸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 의식을 갖게 할 것이다 — 롬 12:15.
 2. 우리가 이러한 감각을 발전시킨다면,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몸 안에 있는 문제들을 감지하게 할 것이다.
 3. 우리가 이러한 감각을 자주 훈련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돌본다면, 이러한 감각이 몸의 감각 곧 몸의 의식이 될 것이다 — 고후 11:28-29.
- D.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거나 혹은 축복을 받을 때, 우리가 몸의 의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여 동일한 어려움 혹은 동일한 축복을 느낄 것이다 — 고전 12:26-27.
- E.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 안에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의식을 발전시킨다 — 빌 1:8, 골 3:10-12, 15, 문 7, 12, 20.
1.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,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 부분들 안에 삶으로써 몸에 대한 의식을 갖고 몸을 위한 느낌을 가져야 한다 — 고전 12:26-27.
 2.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 부분들 안에 삶으로써, 곧 그분의 느낌과 관점을 우리의 느낌과 관점으로 취함으로써,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서 교회생활을 실행할 것이다 — 빌 1:8.